
	2013년 국정감사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 E. yoo575@hanmail.net			
보도일시	2013. 10. 30.(수)~	담당자	수출입은행: 손정갑 보좌관 투자공사: 이영일 비서

[한국수출입은행]

- ▶ AEO 인증을 통한 수출증소기업 지원 방안 모색해야
 - AEO 인증제도의 인식부족, 시간·비용 부담으로 수출증소기업 어려움 커
- ▶ 경수로 사업, 투자금 정산이 답이다!
 - 정부개정에서 매년 이자만 1,100억원 출연해, 중장기 상환계획에 따라 규모 줄여가야
 - ☞ 경수로사업 우리 정부 분담금은 대출원금 1조 3,744억원과 이자 9,251억원! 합계 2조 2,995억원 규모
- ▶ 개성공단 재가동에 따른 경협보험금 외수!
 - 기업의 사정 고려한 탄력적인 대응 필요
 - ☞ 수출입은행 개성공단에 재가동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보험금 반납 요청! 입주기업은 한숨!

[한국투자공사]

- ▶ 한국투자공사, 대한민국 경제규모와 발맞출 때!
 - 운용규모확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해외주요국부펀드와 어깨 나란히 해야
 - ☞ 국부펀드연구소(SWFInstitute) 발표, 자산규모 19위에 만족할 것인가!
 - ☞ 06년 이후 국부펀드 자산규모 증대분 2조 3,750억불 중 81%는 1,000억불 이상 대형 국부펀드에서 발생
 - ☞ 현행 투자방식으로는 역부족! 부동산, 원자재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 ▶ 투자공사는 투자전문가의 징검다리? 전문가 유출 막아야!
 - 최근 5년간 24명의 전문인력 퇴직, 그중 16명(67%)이 투자 관련 직종으로 재취업?!

한국 수출입은행

AEO 인증제도 우대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 현황과 문제점

○ 미국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안전과 원활한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국제규격의 '무역안전규정'을 수립(2005. 6)하였으며, 이는 AEO 인증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음.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른 관세청의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의미
- 우리나라는 2009. 4월 AEO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중국·일본·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을 既 체결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 : 상대국의 AEO제도를 자국의 AEO제도와 동등하게 인정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국 가	체결일	발효일		국 가	체결일	발효일
미국	'10. 6	'10. 9		일본	'11. 5	'11. 11
싱가포르	'10. 6	'11. 1		뉴질랜드	'11. 6	'12. 1
캐나다	'10. 6	미발효		중국	'13. 6	미발효

자료: WCO, AEO Compendium, 2011 및 관세청 발표자료

〈 AEO제도와 상호인정협정 개요 〉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로서 공인업체에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됨
- 전 세계 59개국이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09년 4월 시행하였음

□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이란?

- 양국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 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협정임
- 현재 전 세계 20개의 MRA가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5개국과 MRA를 체결 (전 세계 3위 다체결국)

○ (수출 중소기업 인증 실적부진) 2013년 10월 15일 현재, AEO 공인업체는 총 484개사이며, 이중 수출기업(대기업 포함)은 112개사임.

AEO 인증제도의 인식 부족, 인증 획득을 위한 시간·비용 부담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실적은 더욱 부진한 실정임.

* AEO 인증대상 :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자

- 수출 중소기업 85,882개사('12년) 중 AEO 인증획득은 0.03%인 27개사에 불과
- 수출 중소기업 중 54.5%가 AEO 인증이 불필요하다고 응답('10년 관세청 조사)

○ (AEO인증의 중요성) AEO 인증기업은 협정체결국의 신속 통관편의 등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으로 수출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는 바, 특히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활성화방안이 필요

-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2013년 6월)체결로 통관 효율이 50% 개선되면 양국 교역량은 3.4~11.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국과의 MRA 체결 효과 : 화물검사 생략 시 컨테이너 1TEU당 500~1,000달러 비용 절감이 가능, 경제적 효과 연간 2조 7,000억원 추산

- 관세청은 '11년 이후 수출 중소기업의 'AEO 공인 획득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중

*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최대 2,240만원)

□ 질의 및 정책제언

질의 1) 수출입은행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하여 외부인증에 대하여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질의 2) 수출 중소기업의 AEO 인증이 부진한 실정임.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AEO 인증제도를 우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제언) 박근혜 정부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수출입은행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협력하여 AEO인증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고 컨설팅 등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림.

경수로사업 투자금 정산이 답이다

□ 현황과 문제점

- 대북 경수로 사업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EU 등이 자금을 모아 북한 핵개발 포기를 약속받는 대신 KEDO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를 중심으로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사업임.

- 경수로 사업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10 :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서명 · '95. 3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발족 · '95.12 : KE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서명 · '01. 9 : 본공사 착공 (발전소 기초굴착) · '03.11 : KEDO 집행이사회 사업 중단(suspension)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공정률 34.5% ('03.11 사업중단시 기준) - 소요 공사비 : 15.75억불 (한국 11.46억불, 일본 4.11억불, EU 0.18억불) · '06. 1 : 북한 현장인력 전원 철수 · '06. 5 : KEDO집행이사회 사업 종료 결의 · '06.12 : KEDO-한전간 경수로사업 종결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0 : KEDO집행이사회, 원전 기자재 처분 결정 · '12. 3 : 한전 「기자재 최종 매각보고서」 KEDO에 제출 · '13. 1 : KEDO집행이사회, 한전의 최종 매각보고서 승인 및 사업 청산 종료
---	---

- (대북 경수로 자금상환) 경수로사업 우리 정부 분담금은 2000년 2월 ~ 2006년 12월까지 집행한 대출원금 1조 3,74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비용누계 9,251억원*을 합한 총 2조 2,995억원 규모임.

* KEDO 대출 재원은 전액 공자기금에서 조달한 바, 동 금액은 '13. 9월 현재 공자기금 앞으로 상환하여야 할 원금 (1조 3,744억원)에 대한 이자를 원금화한 금액

- 2012년부터 증가되는 차입금의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자기금 이자 발생분(1,100억원)을 정부재정에서 출연하여 상환을 시작

- 2012년부터 정부 재정에서 이자비용을 보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총 1,161억원 상환 ⇨ 2013년 9월말 현재 총 801억원 상환하였음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조달 현황

(억원)

연 도	정부출연금	정부외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운용수익 등	총 조 성 액
			입금		
2002	4,900	0.78	5,050	425	10,375
2003	3,000	0.01	8,230	490	11,720
2004	1,714	0.01	3,100	459	5,273
2005	5,000	0.33	4,600	434	10,034
2006	6,500	0.15	9,400	456	16,357
2007	5,000	0.75	5,846	502	11,349
2008	6,500	0.52	1,475	689	8,665
2009	-	0.56	810	893	1,704
2010	-	0.5	8,750	741	9,491
2011	-	0.2	1,044	570	1,614
2012	1,128	0.02	4,000	694	5,822
2013.9월	801	0.03	1,700	449	2,950
계 (비중)	45,893 (39.4%)	25 (0.02%)	61,152 (52.5%)	9,351 (8.0%)	116,421 (100.0%)

· 민간출연 현황 : 75건 25억원은 SBS·동아일보 경의선 철도복원 모금(약 10억원),

민주평통 자문위원(3억원), 하이트맥주 남북사랑 캠페인(2.4억원),

수출입은행 임직원(1.7억원) 외 기타 개인, 단체 등

* 공자기금차입금은 경수로 사업비 지원(6조 22억원)+남북기금계정(1,130억원)으로 지출 :

· 공자기금차입금 중 경수로 사업비 지원으로 쓰인 금액

차입금(6조 22억원) - 상환액(3조 7,027억원) = 잔액(2조 2,995억원)

□ 질의 및 정책제언

질의 1)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과 부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남북협력기금에서 KEDO로 대출해 준 것은 얼마입니까? 채무만 남게 되었는데, 이것이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자비용 1,100억원임.

질의 3)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것을 통한 공자기금 차입금에 대한 남북협력자금 내에서의 상환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4) 2011년까지 정부는 공자기금에서의 차입을 통해 이자와 원금 상환(revolving)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다, 2012년부터 이자비용을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실정임.

원금을 포함한 근본적 상환 계획과 더불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KEDO 대여금으로 인한 남북협력기금 부실화에 대한 해결대책을 정부와 상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제언) 경수로 차입금 정산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도록 해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따른 경험보험금 회수

- 기업의 사정을 고려한 탄력적인 대응 필요해-

□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근로자 철수 발표에 따라 2013년 4월 8일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정부는 2013년 8월 7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험보험금을 지급하였음. 그리고 개성공단 재가동에 따라 기존 지급했던 경험보험금을 15일 이내 반납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기업측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

- 정부의 경험보험금 지급 결정 이전, 경험보험금을 신청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09개사로 신청금액은 2,809억원으로 이 중 2013년 9월 17일 기준으로 59개사가 1,760억원의 보험금을 수출입은행으로 부터 수령하였음

* 경험보험을 받게 되면, 사실상 개성공단에서 철수한다는 의미였음. 정부에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정부가 재산을 처분하는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

개성공단 경험보험금 지급현황

(개사, 억원)

구 분	지급심사 완료	실제 보험금 지급
기업수	109	59
금 액	2,809	1,761



자료: 수출입은행

○ (경험보험금 반납) 수출입은행은 2013년 9월 16일 북한 근로자의 투입으로 본격적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됨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비상위험 해제를 사유로 재가동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는 공문을 59개 기업에 발송하였음.

현재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경영애로를 호소하며 보험금 반납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 수출입은행 공문, “13.9.16부터 개성공단이 재가동됨에 따라, 약정서 제8항의 ‘근저당권(양도담보권 포함)이 설정된 개성공단 자산의 처분’(경매공고일은 향후 지정)과 관련, 제9항에 따라 15영업일(13.10.15일 예상) 이내 보험금을 반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통일부 방침에 의거 수출입은행이 대상 기업에 보험금 반납 공문 발송
- 통일부, 보험금 반납조치를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상 관행과 법 논리에 따른 조치
- 연체금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에 따른 지연 배상금율을 준용해 1~30일은 3%, 31~90일은 6%, 그리고 90일 초과 시에는 9% 적용

참 고		경협보험금 반납 안내 공문	
 한국수출입은행 <small>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small>			
우편번호 : 150-996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담당자 : 유 인 규 FAX : (02)3779-6758 전 화 : (02)3779-6711 E-mail : ingumi@koreaexim.go.kr			
문서기호 : 남북13P - 1864			
발신일자 : 2013. 9. 17			
수 신 : 수신처 참고			
제 목 : 근거당권(양도담보권 포함) 설정 자산 처분의 개시 및 경협보험금 반납 안내			
1. 귀사와 당행이 체결한 경제협력사업보험 계약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한 약정서와 관련됩니다.			
2. '13.9.16부터 개성공단이 재가동됨에 따라, 약정서 제8항의 '근거당권(양도담보권 포함)이 설정된 개성공단 자산의 처분'(경매공고일은 향후 지정)과 관련, 제9항에 따라 15영업일('13.10.15일 예상) 이내 보험금을 반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개성공단 재가동을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내 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별표4의 요율을 적용한 연체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연체기간		기금이 정한 이율	
30일 이내		연 3%	
90일 이내		연 6%	
90일 초과		연 9%	
붙.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사업부장 			
수신처 : 보험금 수령 보험계약자 대표			

□ 질의 및 정책제언

질의 1) 수출입은행이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기업들은 지난 10월 15일까지 경협보험금을 반납하여야 했음.
 이 기한을 넘긴 기업들은 지금도 지연배상금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납부기업은 몇 개사며, 15일까지 반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이미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보험금 반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예의 시간을 달라'는 것인데, 보험약관 등에 의거 보험금 반납 기간의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 3) 지난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총리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보험금 반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신용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수출입은행이 운영 중인 정책자금이나 신용대출을 통해 경협보험금에 대한 별도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경협자금 유예 등의 조치와는 별도로 보험금 회수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사정 악화로 보험금 반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투자공사

201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

-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 지난 2012년도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당시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함.

질의 1) 먼저, 한국투자공사의 국내투자 허용에 관한 부분임

한국투자공사의 투자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수익률을 높이고 정부의 여유 원화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해외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신규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효과, 해외자본의 국내시장 잠식 방어능력 제고,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일시적 이탈 등으로 발생하는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위기 완화 등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와 관련된 대책을 세워보라고 제안한바 있음.

현재 국내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된 상황이 있는지요?

질의 2) 두 번째, 운용자금의 확충 부분임

위탁자산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2012년 10월 작년 국정감사 당시 운용자산은 501억불(13.7 현재 663억불) 규모로 테마섹(1,930억불), GIC(2,475억불) 등과 비교하여 작은 규모였음. 따라서 투자수익률 제고의 한계와 더불어 자원·에너지, 대형 매수병합 등 전략적 차원의 투자에 대한 어려움 등을 지적한바 있음

운용자금 확충과 관련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계획은?

질의 3) 세 번째, 전문인력의 부족과 관련한 부분임

'12년 국감 당시, 1인당 자산운용 규모는 4억3천불로 해외 주요 국부펀드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최근 채권, 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이 커짐에 따라 투자기회의 발굴, 투자 대상 기업의 실사 및 협상, 리스크관리 등의 전문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음

현재 1인당 운용자금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의 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어떠한지요?

한국투자공사, 대한민국 경제규모와 발맞출 때!

-운용규모 확대,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 어깨 나란히 해야-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한국투자공사는 '13년 9월 현재 순자산 645억불, 투자성과 95억불, 최초 투자이후 총자산 수익률은 연환산 기준 3.61%로 성과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하여 외환보유고 대비 적은 운용자금, 국내 연기금과의 공조 미흡, 전문인력, 현행 제도에 따른 투자방식의 한계와 지조한 집행률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위탁 자산과 투자성과 등) 위탁자산은 '13년 9월 현재 총 550억불(재정부: 350억불 한은: 200억불)로서 자산별로는 전통자산 481억불, 대체자산 49억불, 전략적투자 20억불임. 또한 장기분산투자 원칙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결과 투자개시 이후 총 투자 수익 95억불(BoA 지분 평가손실 포함)을 달성

〈 최초 투자이후 투자성과 요약 〉

(단위 : 억불, '13년 9월말)

구 분		투자원금	순자산가치	누적투자손익
전통자산	주식	262	313	51
	채권	172	218	46
	기타*	47	50	3
	소계	481	581	100
대체자산	헤지펀드	14	16	2
	사모주식	23	25	2
	부동산	10	11	1
	현금등가	2	2	0
	소계	49	54	5
전통+대체자산 소계		530	635	105
전략적 투자(BoA)		20	10	-10
합계		550	645	95

* 기타는 물가채권, 상품, 현금, 혼합형 등으로 구성

** 전략적 투자는 Bank of America 투자 (원금기준 20억불)

- (수익률) 최초투자 이후 총자산 수익률은 '13년 9월 기준 3.61%(연환산기준)이며 동기의 전통자산은 4.81%로 운용기준 대비 0.48%p 초과수익을 달성함.

- 12년 수익률은 11.83%로 운용기준 대비 0.66%p 초과수익 달성

〈 전통자산 수익률 요약 〉

(단위 : %, %p)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 ('08-'12)	'13.9월	최초 투자이후 연환산 수익률
전체	투자수익률(A)	-13.71	18.67	8.46	-3.32	11.83	3.72	4.81	4.55
	운용 기준(B)	-13.05	17.24	8.41	-2.43	11.17	3.69	4.34	4.54
	초과수익률(A-B)	-0.66	1.42	0.05	-0.90	0.66	0.03	0.48	0.01
주식	투자수익률(A)	-41.43	31.96	11.71	-10.26	16.20	-2.08	11.34	0.82
	운용 기준(B)	-41.32	32.20	12.39	-9.27	16.19	-1.67	10.69	1.22
	초과수익률(A-B)	-0.11	-0.23	-0.68	-0.99	0.01	-0.41	0.66	-0.40
채권	투자수익률(A)	3.81	8.52	5.60	3.94	7.76	5.90	-1.94	5.47
	운용 기준(B)	5.16	6.81	5.25	4.64	6.52	5.67	-1.78	5.36
	초과수익률(A-B)	-1.36	1.71	0.35	-0.71	1.24	0.23	-0.16	0.11

* 최근 5년간 ('08년~'12년) 연환산 수익률은 3.72%, 운용 기준 대비 0.03%p 초과수익 달성

- (주요국의 외환보유고와 운용자금) 국부펀드연구소(SWFInstitute)에 따르면, 현재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국 70개국 중 한국투자공사는 자산규모 기준 19위(운용자산 기준 21위)를 기록하고 있음. 운용자금 확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주요국 국부펀드 현황 및 외환보유현황 (USD bn) 〉

국 가	Korea	China	Norway	USA	New Zealand
운용 기관	KIC	CIC	NBIM	Alaska Permanent Fund	NZ Superannuation Fund
총자산 ('13년 3월 기준)	57.7(18%)	480.2	715.9	45.0	16.6
외환보유고 ('13년 3월 기준)	328.8	3442.7	53.6	147.3	19.1
외환보유고 ('07년 3월~'13년 3월 5년 평균)	299.7	1556.4	48.1	113.8	15.7

* 국제금융센터 외환보유액 금융지표(Economic and Financial Statistics) 참고작성('13.10)

○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의 경쟁과 운용자금 규모 확대) 최근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주요국들은 전략적 국부중진,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부펀드를 적극 육성 중임. 이러한 국부펀드 간 직접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용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자금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임.

- 인도, 태국 등 후발주자들도 국부펀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한국투자공사 출범 이후 8년 만에 20개의 국부펀드가 신규 설립되었고 향후 인도, 태국, 일본 등 10개국 이상이 국부펀드 설립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06년 이후 국부펀드 자산규모 증대분 23,750억불 중 81%는 1000억불 이상 대형 국부펀드에서 발생

〈2006년 - 2013년 1월 국부펀드 자산규모 증대분 분석〉

국부펀드 대형화 관련 comments

“급증한 외환보유와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운용기금을 계속 늘려나가겠다”

-전리현 CIC 감사장, 2011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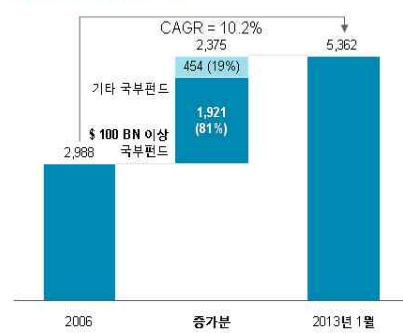
“호의적 외부 환경과 더불어 후세대를 위한 부의 증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증대할 것...”

-10위권 중동 국부펀드

“AuM 1,000 억불을 넘는 국부펀드들의 규모의 이익이 명확...선도 국부펀드들은 지속적으로 기금 증가를 추진할 것”

-국부펀드 전문가 패널

국부펀드 순위별 평균 AuM 변화
USD BN, 2006 - 2013.01



- 2006년 이후 국부펀드는 연평균 10%의 높은 AuM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 ...국부펀드 성장의 약 80%는 AuM 1조원 이상의 대형 국부펀드로부터 발생

Source: SVF Institute, Press search, Oliver Wyman analysis

출처: 올리버 와이먼(Oliver Wyman)/글로벌 금융컨설팅 회사

○ (투자방식의 한계) 한국투자공사는 전통자산 90%, 대체투자 10%로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음. 세계 주요국의 국부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원자재 매입 등을 통해 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음.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의 보수적인 가이드라인, 인력 부족 등에 따라 다양한 투자를 펼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부동산 및 사모주식 투자(원자재 관련 포함)는 투자 수행과정에 있어 상당량의 업무와 시간이 소요됨
- 양질의 투자기회 발굴, 수익성과 리스크 검토, 타기관 협상, 자산관리, 매각 등 단계적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전제 되어야 함
- CIC(중국)의 경우, 원자재 영역 직접투자 비중이 80%에 달함

〈CIC(중국)의 부동산, 원자재 관련 투자현황〉

산업	투자대상	시점	국적	지분율
Metal&Steel	Noble Group (금속 운송)	2009	홍콩	15%
Mining	Teck Resources (자원 채굴)	2009	캐나다	17.2%
	Polyus Gold International Ltd (금채굴)	2012	러시아	5%
Oil & Gas	Noble Oil Group (유전개발)	2009	러시아	45%
	Penn West Energy Trust (자원개발지주)	2010	캐나다	47.3%
Utility& Energy	GDF Suez SA (유전개발)	2011	프랑스	30%
	AES Corp (발전소 운용)	2010	미국	15.8%

자료: 올리버 와이먼 보고자료

○ (저조한 집행률에 따른 문제) '12년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하는 외화자산 규모는 당초 계획액이 100억불이었으나 이 중 85.2억불만 실제 위탁되었다는 지적과 지난 '11년에도 실 집행액은 계획액의 50억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투자공사가 대체자산에 투자할 때는 투자 결정에 시간의 소요가 상당하여 위탁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이 자금은 이월이 되지 않음.

〈집행률 문제와 관련한 자금집행 프로세스 개선내용〉

KIC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기획재정부 위탁계획 예산 100억불 중 약 15억불의 대체자산 미집행금액은 하반기 50억불 추가 위탁이 11월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거쳐 결정됨에 따라 연내 자금집행이 어려웠음 - 대체자산의 특성상 적절한 투자처의 발굴, 신중한 내부검토, 투자조건 협상의 지연, 다년간에 걸친 자금집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
문제발생 전 프로세스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펀드매니저(General Partner)로부터 자금집행 요청(Capital Call)이 발생할 때마다 위탁자(기획재정부)에게 자금이체를 요청하여 집행 - 기획재정부의 위탁자산은 국가예산(외평기금)의 집행으로서 매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예산으로 재배정 받지 않으면 정부회계처리 상 “불용”으로 처리되어 집행할 수 없게 됨. - 대체자산 간접투자는 투자약정(Commitment) 이후 자금집행이 3 ~ 5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집행기간의 불일치로 기금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음
개선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위탁이 결정되면 이를 모두 전통자산(채권 및 주식)으로 운용하고, 위탁 자산 중 대체자산에 배분된 금액은 자금소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통자산에서 인출하여 대체자산 투자에 집행. 따라서 기금예산의 불용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 질의 및 정책제언

- (자산규모 19위? 경제규모 고려해야) 한국투자공사는 설립이후 일부 투자(BoA 메릴린치)에서 비교적 큰 손실을 입었지만 이후 안정적인 자산의 운용으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음. 향후 주요국의 국부펀드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운용자금 확대, 전문인력 확보, 대체투자 확대 등의 다각도의 투자방식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질의 1) 사장께서는 국부펀드연구소에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KIC의 국부펀드 순위(19위)를 어떻게 평가 하는지요?

질의 2) 물론 여러 제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회원국 70개국 중 자산부분에서 19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주요국과의 경쟁과 신흥국의 발전) 최근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주요국들은 국부증권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부펀드를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국투자공사 출범 이후 8년 동안 20개의 국부펀드가 신규로 설립됐고 또한 인도, 태국, 일본 등도 국부펀드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질의 3) 경쟁상대라고 볼 수 있는 주요 국부펀드의 경우, 정부정책을 통해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간략히 말씀바람.

질의 4)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투자공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요?

질의 5) 한국투자공사 설립이후 8년 동안 20개의 국부펀드가 신규로 설립되었고 이 중 8개 국부펀드는 국부펀드연구소가 발표한 자산 규모에서 우리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일본, 인도, 태국 등이 국부펀드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질의 6) 결국은 운용자산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음. '06년 이후 국부펀드 자산규모 증대분 2조3,750억불 중 81%는 1,000억불 이상의 대형 국부펀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질의 7) 한국투자공사 또한 수년간 운용자금 확대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어떤지? 또한 국내 연기금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인데 현황은 어떤지?

- (투자방식의 한계) 한국투자공사는 안정성을 중시(전통자산 90%, 대체투자 10%)하고 있으나 세계 주요국의 국부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원자재 매입 등을 통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질의 8) 주요국의 국부펀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원자재 매입 등을 통해 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례와 성과는 어떠한지?

질의 9) 한국투자공사 역시 부동산 및 사모주식 등(원자재 포함)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지?
(투자 수행과정에 있어서 상당량의 업무와 시간의 소요가 있음. 이와 같은 투자의 경우 양질의 투자기회를 발굴, 수익성과 리스크 검토, 자산관리 및 매각 등 단계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필요함)

- (저조한 집행률에 따른 문제) '12년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할 외화자산 규모는 당초 100억불로 계획되었으나 이 중 85.2억불만 실제 위탁. 지난 '11년 역시 실행액은 계획액의 50%인 50억불에 그침.

질의 10) 지난 '12년 외평기금에서 KIC로 당초 100억불을 위탁할 계획이었으나 이중 85억불만 위탁되고 15억불은 위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질의 11) 이와 관련하여 KIC의 집행률 부진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전문인력 확충 철저한 대비책 세워야
-전문인력, 최근 5년간 24명 퇴직! 이중 67%가 유사직종으로 전직-

□ 현황과 문제점

- (전문인력 확보? 유출부터 막아야) 최근 5년간('08~'12) 한국투자공사의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퇴직인원 24명 중 건강상, 학업, 인병 등의 사유로 퇴직한 8명을 제외한 16명(전체 퇴직 인원의 67%)이 전직을 사유로 퇴직

〈연도별 퇴직직원 현황 및 재취업 현황〉

성명	소속	직위	직무	퇴사일자	퇴직사유	전직회사	
						재취업기관	직위
OOO	리스크관리팀	부장	리스크관리	08-02-29	전직	A증권	전무
OOO	정보시스템팀	과장	IT	08-07-04	전직	B 금융지주	차장
OOO	투자전략팀	과장	리서치	08-09-26	전직	C자산운용	차장
OOO	간접운용팀	차장	EFM	08-10-01	개인사유	D연금	실장
OOO	주식운용팀	선임	주식_Trading	09-08-07	전직	E	상무
OOO	주식운용팀	전임	주식운용	09-09-10	전직	F증권	과장
OOO	대체운용실	선임	헤지펀드	10-04-01	전직	-	-
OOO	기획관리실	부장	대외협력	10-05-12	전직	G	본부장
OOO	증권운용실	선임	Quant	11-04-19	전직	H자산운용	팀장
OOO	기획관리실	대리	총무_비서	11-08-02	전직	I공사	대리
OOO	증권운용실	전임	채권운용	11-08-16	전직	J증권	Junior
OOO	대체운용실	선임	법무	11-10-21	전직	K	Legal Counsel
OOO	주식운용팀	선임	주식운용	12-02-03	전직	L증권	부장
OOO	투자전략실	선임	간접운용	12-06-09	전직	M	이사
OOO	투자전략실	선임	TAA	12-09-28	전직	N	Investment Associate
OOO	부동산인프라팀	선임	부동산인프라	12-10-31	전직	O투자증권	-

자료: 한국투자공사

○ (전문인력 채용 관련) 신규인원확충('12년 40명/ '13년 19명)으로 '13년 7월 현재 1인당 자금운용 규모는 정원기준 4.5억불로서 지난해 4.7억불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했지만 해외주요 국부펀드(Khazanah Nasional 1.23억불/ GIC 2.48억불/ QIC 1.2억불)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또한 투자유관 부서와 일반관리부서(19%) 비율에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일반관리부서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자금을 운용하는 인원에 대한 1인당 자금 운용 규모는 더욱 높아질 것임.

〈정원 및 1인당 운용규모〉

구분	2010	2011	2012	2013
운용금액	369	429	566	633
정원(명)	75	91	120	141
1인당 운용규모	4.9	4.7	4.7	4.5

자료: 한국투자공사

○ (전문인력 확충, 제도 개선부터) 한국투자공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선진 자산운용사와의 경쟁이 불가피 하며 이를 위해 우수한 투자인력의 확보 및 양성이 가장 필요하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 공공기관에 대한 정원관리 및 조직관리, 급여의 제약 등으로 전문투자 인력의 경우 IB 등의 타 투자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국부펀드와의 1인당 운용규모 비교 오류) KIC 인력구조는 투자업무의 관련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Front, Middle/back, 경영관리로 구분하고 있는데 투자업무와 가장 밀접한 'Front' 72명, 리스크 관리와 운용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Middle/back' 36명, 기획과 인사 대외홍보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경영관리 27명으로 정직원인 139명임.

〈KIC 인력현황〉

부	문	인원	세부업무별 인원
임원		4	CEO, CIO, COO, CRO
투자	Front	72	투자전략/리서치/SAA/TAA/헤지펀드 등 13, 주식운용 18, 채권운용 16, 사모주식 13, 부동산인프라 9, 헤지펀드 3
	Middle/ back	36	리스크관리 11, 운용지원 8, 준법감시 5, 정보시스템 8, 해외사무소 4(소장, 오피스매니저)
경영관리		27	기획 6, 인사 5, 대외홍보협력 7, 경영지원 6, 감사실 3
기타		30	해외사무소9, 기타30
계		169	

- 한국투자공사는 1인당 운용규모를 산정할 때 139명(현원), 141명(정원), 169명(전체인원)을 혼용해서 제출하거나 발표함. '13년 10월 기준 전체인원 169명 중 자산의 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정규직 등의 인원도 포함한 전체인원(169명)으로 1인당 운용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임.

〈본의원실에 제출한 전체인원 기준 '13년 주요 국부펀드의 1인당 운용규모〉

구분	KIC	싱가포르 GIC	싱가포르 테마섹	뉴질랜드 Super annuation
운용금액	645억불	2,475억불	1,980억불	178억불
전체인원	169명*	1,000명	380명	76명
1인당 운용규모	3.8억불	2.5억불	5.2억불	2.3억불

자료: 한국투자공사

- 또한 경우에 따라서 1인당 운용규모를 달리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의 비교에서 비교대상도 마찬가지로 정원/현원/전체인원을 동일하게 비교해야 할 것인데 GIC(1000명), Temasek(380명)은 전체인원으로 추정되는 인원수만 비교

□ 질의 및 정책제언

○ (전문인력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한국투자공사의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퇴직인원 24명 중 건강상, 학업, 인병 등의 사유로 퇴직한 8명을 제외한 16명(전체 퇴직 인원의 67%)이 전직을 사유로 퇴직

질의 1) 한국투자공사의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 등을 통해서도 공문화 되고 있는 전문 인력 확보문제는 국부펀드 운용사로서는 운용자금의 확대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24명의 전문인력의 퇴직에 대한 견해는?

질의 2) 최근 5년 간 퇴직한 전문인력 중에는 건강, 학업, 인병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인원도 8명이 있으나, 16명의 전문 인력(67%)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직을 사유로 퇴직했고 실제로 동종 업계로 자리를 옮겼음. 이는 한명의 전문 인력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투자공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질의 3)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관리 및 조직관리, 급여의 제약 등 타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의 법적용은 투자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투자공사로서는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 (1인당 운용규모 비교의 오류 개선필요) 현재 한국투자공사는 1인당 운용규모를 산정할 때 139명(현원), 141명(정원), 169명(전체인원)을 분모로 하는 1인당 운용규모를 각각 혼용해서 제출하거나 발표함. 전체인원 169명('13.10 기준) 중 자산의 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도 포함한 전체인원(169명)을 분모로 하는 것은 '1인당 운용자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임.

질의 4) 본 의원실에서는 1인당 운용규모와 관련한 자료를 한국투자공사에 두 차례 요구한 결과, 전체인원 169명에 대한 3.8억불, 정원 141명에 대한 4.5억불이라는 자료를 각각 제출했음. 따라서 혼용의 특별한 사유 등에 대해 재차 확인결과 한국투자공사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사장장께서는 139명(Front, Middle/back+경영관리)과, 141명(정직원의 정원), 그리고 169명(Front, Middle/back+경영관리+기타인원) 어떤 인원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질의 5) 한국투자공사의 인력부족 문제는 공론화 되고 있고 일부 공감하고 있는 면이 있으나, 주요국의 국부펀드와 1인당 운용자금 등 객관적인 비교를 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임. 주요국의 국부펀드에 인력구조는 기밀사항이라 파악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해옴. 지금까지 제출되거나 연구 자료를 통해 발표된 주요 국부펀드와 한국투자공사의 비교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전문가 지적에 대한 견해는?